

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부당성

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별위원회
위원장 윤중호

□□ 추진경위

구 분	추진 현황	비고
2019.04.29	▶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 체(MOU) - 참석자 : 국무총리, 국무조정실장, 환경부 장관,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, 구미시장, 대구시장, 울산시장 - 합의사항 · 구미에 최적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 시행(국비10억원) ·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관리 용역 시행(국비10억원)	
2020.08.05	▶ 「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」 중간보고 ⇒ 낙동강유역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	
2020.09.25~28	▶ 구미지역 주민·시민단체, 환경부(9.25) 경북도(9.28) 순차 항의 방문	
2020.09.28	▶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 준공 ⇒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방안 및 물다변화 방안 3개의 안 제시 ▶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연구용역 준공 ⇒ 도입 불가 결론, 대안으로 수질개선시설 설치 논의 중	
2020.11.06	▶ 환경부 주관 「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구미지역 설명회」 개최 ⇒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	
2020.11.19	▶ 환경부 주관 「낙동강 상류지역 열린토론회」 개최 ⇒ 반추위·민관협의 위원장 및 구미주민 강력항의 후 퇴장	
2020.12.23	▶ 「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」 환경부 → 「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」 상정	
2021.01~06	▶ 환경부, 「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」 갈등관리포럼 시행 중 (1차) 5.25일 (2차) 6.10일 (3차) 6.24일 : 낙동강물관리위원회 .심의. 의결	

2020. 1.31. 「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」 중간보고회

※가용수원

→ ① **임하댐**영천댐 ②대구강변여과수 ③고도정수처리

2020. 4.17. 「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」 중간보고회

※가용수원

→ ① **임하댐**영천댐 ②대구강변여과수 ③고도정수처리



21,07,12일 홍의락 경제부시장
'지난 1년 가장 큰 보람이?

**"애초 환경부가 낙동강 하류 부분만 처리하려 했는데
대구부분에 환경부 강하게 역할을 해서 변경됐다"**

연합뉴스

2020. 9. 17. 「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마련 연구용역」 중간보고회

※가용수원

→ ①해평취수원 활용 등 ②대구강변여과수 등 ③임하댐 활용 등

2021. 6. 24.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, 용역(안) 심의·의결

○(의결안)

안전한물 다변화 대안	추정사업비	비 고
■ 해평(구미과역)취수장 활용 30만톤/일 ■ 초고도정수처리(문산·매곡) 28.8만톤/일	7,199억원	■ 신설관로길이 : 55km

○(조 건) 착공전, 취수원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할 것

□□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의 문제점

낙동강유역 물관리 연구용역(환경부)

취수 방식	중간 보고 (2020년 8월)	최종 보고 (2020년 10월)
구미 해평취수장 + 초고도 정수처리	7,199억 원	7,199억 원
대구 강변여과수 + 초고도 정수처리	5,544억 원	8,077억 원 또는 10,443억 원 “금호강 유지수 활용 추가로 사업비 상승”



대구시가 이전을 주장하는 3가지 그리고 구미시의 반박

첫째 : 91년 폐놀사고 이후 혹시나 발생할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책(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)

반박

⇒ 수질사고는 구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.

구미 상류 4,830여 개의 공장 있어 구미가 안전지대가 아니다.
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, 사고 시 적절한 대응
능력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지

둘째 : 구미공단에서 사용하는 1,500여종 이상의 미량
화학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유출되어
먹는 물로서는 안전하지 않음

반박

⇒ 대구시에서 주장한 1,500여종의 미량 유해물질은
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된다는 근거는 없음(제3차 대구
구미 민·관협의회) ⇒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에
적합하게 낙동강으로 방류 검증 됨

셋째 구미시가 대구보다 과불화화합물 많다는 주장

반박 《 대구시가 구미시의 무려 300배 많다. 》

▶ 환경부가 전국 산업단지 하·폐수처리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과불화화합물인 과불화옥탄산 검출 농도가 구미산단($0.016\mu\text{g/L}$)에 비해 대구성서산단($4.8\mu\text{g/L}$)이 300배 높게 검출됨 (2018.8월 대구MBC 방송)

※ **이전 주장하는 명분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.**

대구가 더 많이 배출

과불화옥탄산(PFOA) 검출 농도($\mu\text{g/L}$)

구미	4단지하수	0.016
대구	성서산단	4.8
대구	달서천하수	
대구	서부하수	

300배

□□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의 문제점

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

- 2019년 4월 29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용역 시행
 - 용역기간 : 2019.03.29 ~ 2020.09.28. (2차례 연장)
 - 용역업체 : (사)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, (주) 삼안, 한국건설기술연구원
 - 시행처 : 환경부

▶ 상류지역 안전한 물 다변화

(안) 활용수 58.8만톤/일 배분(대구57, 칠곡 0.2, 성주 0.9, 고령 0.7)

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	추정사업	비고
• 해평(구미광역)취수장 활용 30만톤/일 • 초고도정수처리(문산·매곡) 28.8만톤/일	7,199억원	• 신설관로길이:55km
• 금호강 유지용수 활용 25.9만톤/일(영천댐에서 도수) • 강변여과수 개발 23.0만톤/일 • 초고도정수처리(문산·매곡) 9.9만톤/일 ※ 대구시 하수처리장 4개소 초고도처리 후 금호강 유지용수로 활용(25.9만톤/일)	8,077억원 또는 10,443억원 (※ 당초:5,544억원)	• 신설관로길이: 29km(경산취수) 또는 77km(영천댐)
• 임하댐 활용 30만톤/일 • 초고도정수처리(문산·매곡) 28.8만m³/일	10,507억원	• 신설관로길이:99km

IV. 구미시가 취수원이전을 반대하는 이유

규제 영향지역



구미는 광역 취수원으로 고아와 해평 두 곳의 취수장이 있으며 해평 취수장의 물이 공급 되더라도 강을 중심으로 좌.우 그리고 상류에 영향이 미치며 고아,해평,선산,도개,옥성,무을은 직.간접 규제 영향지역이다.

팔당호와 대청호는 2권역 **8.3**배 취수구역 확대,
향 후 기업규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.
구미가 대구의 물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.

1.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현황

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

(자료: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, 2017.12, 환경부)

(사례) 팔당·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

☞ 상수원보호구역(337.8km²)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(2,797.15km²)

⇒ 상수원보호구역의 8.3배 정도의 특별대책구역 지정됨

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·제한지역현황



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

- 지정 일시 : 2012.06.11 (구미시 고시 제2012-85호)
- 지정 거리 : 해평 광역 취수원 기준 상류 3.25km 지점
- 지정 면적 : 3.320km² (해평광역취수장 ~ 송선대교까지)
- 공장설립제한지역 : 219.92km² (상수원보호구역 ~ 유하거리 20km)

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 설립 제한

(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와 제 14조의 3 --- 2011.11.26 신설 --- 부칙 제4조)

취수원 구분	제한지역	공장설립승인지역 1호	공장설립승인지역 2호	비 고
하 천 수	16.60km² 취수지점 상류 4km	189.26km² 유하거리 7km ~ 20km	14.06km² 유하거리 4km ~ 7km	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)

- 가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(기정) 사장 변창흠 (변경)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
 나. 주 소 :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(고성3가)
 성 명 :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
- 가. 개발기간
 기정 : 2009년~2021년(1-1단계 : 2009년~2016년, 1-2단계 : 2009년~2018년 1월,
 1-3단계 : 2009년~2020년 12월, 1-4단계 : 2009년~2021년 6월, 2단계 : 2009년~2021년)
 변경 : 2009년~2022년 12월(1-1단계 : 2009년~2016년, 1-2단계 : 2009년~2018년 1월,
 1-3단계 : 2009년~2021년 9월, 1-4단계 : 2009년~2022년 12월, 2단계 : 2009년~2022년 12월)
 나. 개발방법 :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변경)

- 가.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변경)
 ○ 주요 유치업종(변경없음)

유치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 (중분류)	비고
차세대 전자·통신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
첨단기계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 전기장비제조업(28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
미래형 자동차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	
신재생 에너지	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(23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 전기장비제조업(28)	
기초산업	1차금속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및가구제외)(C25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	
물산업 집적단지	섬유제품제조업(13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(20)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3), 1차금속제조업(24)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제외)(25)(추가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 전기장비제조업(28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
R&D 연구시설	수도사업(36) 출판업(58)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 연구개발업(70) 전문서비스업(71)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)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3) 사업지원 서비스업(75) 교육 서비스업(85) ※ 수도사업(36)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, 정수장에 한함 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에 한함	
물류시설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(여객운송업 제외)(49)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	

구미 하이테크밸리 입주업종배치계획



입주가능업종

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1구역 : 4개업종 (폐수배출제한)	2구역 : 7개업종	3구역 : 16개업종 일반 7개	탄소관련 9개	4구역 : 1개업종
C13 섬유제품				○ 단, 131, 132, 133, 139	
C14 의복, 액세서리, 모피제품				○ 단, 141, 143, 144	
C15 가죽, 가방, 신발				○ 단, 2013, 2041, 2050	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				○ 단, 213	
C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					
C22 고무제품, 플라스틱제품					
C23 비금속광물					
C24 1차금속					
C26 전자부품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	●	●	●		
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, 시계	●	●	●		
C28 전기장비	●	●	●		
C29 기타 기계 및 장비	●	●	●		
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		●	●		
C31 기타 운송장비					
C32 가구				○ 단, 3201, 32099	
C33 기타제품				○ 단, 333	
D35 전기, 가스, 증기, 공기조절 공급					●

*단, 주물·레미콘·아스콘 및 용수다소비 등 관리기관이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입주 제한됨

대구시는 맑은 물 공급 위해 그 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.

그런데 이전과 다변화 왜???

구미로 이전 시 대구 취수원보호구역 해지 할 것이라는 구미의 주장에 절반만(30만 톤)가지고 가면 취수원은 그대로 존재 한다는 대구의 꿈수 주장 그것도 구미시가 수량이 부족하면 먹지 않겠다는 황당한 주장.

대구시는 30년 전 폐놀유출을 들먹이며 **서울처럼 대구의 취수원을 타 지방으로 옮겨서 대구의 환경규제 완화와 미래 경제성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꿈수다.**

감사합니다